



# 샤라포바, 세계랭킹 262위 재진입

### WTA 투어 포르세 그랑프리 4강 진출 랭킹 포인트 185점 획득

도쿄 징계를 마치고 돌아온 마리아 샤라포바(30·러시아)가 262위로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랭킹에 재진입했다.

지난 1일(한국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막을 내린 WTA 투어 포르세 그랑프리에서 4강까지 진출한 샤라포바는 랭킹 포인트 185점을 획득, 2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262위에 올랐다.

지난해 1월 호주오픈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멜도니움(Meldonium)에 양성 반응을 보인 샤라포바는 15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었다.

세계랭킹은 최근 1년간의 성적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샤라포바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세계랭킹이 없었다.

포르세 그랑프리에서 복귀전을 치른 샤라포바는 이 대회 결승에 오르면서 세계랭킹 200위 이내로 올라가면서 28일 개막하는 프랑스오픈 예선에 자격 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4강에서 탈락하면서 프랑스 오픈에 자격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프랑스오픈 조직위원회는 샤라포바에 와일드카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임신 사실을 공개한 '흑진주' 세레나 윌리엄스(36·미국)가 2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포르세 그랑프리에서 8강 이상의 성적을 내면 세계랭킹 1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안젤리크 케르버(29·독일)는

이 대회 2회전에서 탈락해 2위를 유지했다.

카롤리나 플리스코바(25·체코)가 3위로 변함이 없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에서는 1~5위가 변함이 없었다.

앤디 머레이(30·영국), 노박 조코비치(30·세르비아), 스탠 바브링카(32·스위스), 로저 페더러(36·스위스), 라파엘 나달(31·스페인) 순이었다.

ATP 투어 바르셀로나오픈에서 8강까지 오른 정현(21·한국체대)은 세계랭킹 94위에서 78위로 16계단 상승했다.

정현은 2015년 10월 말 세계랭킹 51위까지 오른 바 있다.

/김민근기자

## 문체부, 평창동계올림픽 예술포스터 공모

### 접수기간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예술포스터를 공모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예술포스터는 예술가들이 올림픽·패럴림픽의 비전과 정신을 반영하는 예술작품으로 이번 공모에는 디자인

미술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협력해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작품 출품자에게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선정된 작품은

IOC에 대회 문화유산으로 기록된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4일부터 31일까지이며 메인포스터 1점(필수)과 시리즈포스터 1~2점(선택)의 작품을 작품설명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과 공모지원 신청서 등은 평창올림픽 누리집(www.PyeongChang2018.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8일에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모설명회도 열린다.

/김민근기자

# 추신수, 메이저리그 올스타 후보 선정

### 아메리칸리그지명타자 부문

'추추 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올스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MLB 사무국은 지난 2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 MLB.com을 통해 올스타 팬 투표를 시작하면서 양대리그 각 포지션별 후보를 발표했다.

추신수는 아메리칸리그 지명타자 부문 후보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투표에서는 내셔널리그의 경우 포수 1명, 내야 각 포지션 1명씩 4명, 외야수 3명을 뽑는다.

아메리칸리그는 여기에 지명타자 1명을 더해 9명을 선발한다.

올해에는 추신수가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올라 팬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부상으로 고전했던 추신수는 올해 지명타자로 더 많이 나서고 있다. 그는 1일까지 타율 0.274 3홈런 11



타점 1도루를 기록했다.

KBO리그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출신 에릭 테임즈(31·밀워키 브루어스)도 내셔널리그 1루수 후보 한 자리를 꿰찼다.

NC 다이노스에서 3년 동안 활약하고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테임즈는 1일까지 타율 0.345 11홈런 19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러 스타로 떠올랐다.

투표는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24시간 동안 한 사람이 최대 5번 투표할 수 있으며 총 35차례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올해로 88회째를 맞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7월 12일 마이애미 말린스의 홈구장인 말린스 파크에서 개최된다.

/김민근기자

## KPGA제네시스 대상 수상자, 유러피언투어 직행

앞으로는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양희부·KPGA) 시즌 대상자는 유러피언투어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KPGA는 최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KPGA 빌딩 10층에서 유러피언투어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2021년까지 5년간 협약을 맺었다.

KPGA와 유러피언투어는 공동 주관으로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뜻을 모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올 시즌부터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에게는 유러피언투어 직행할 수 있는 시드(16번 카테고리)를 부여하고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를 제외한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3명에게는 유러피언투어 키스쿨 1차전을 면제해주고 2차전부터 치르기로 합의했다.

KPGA 양희부 회장은 "본 협약을 통해 많은 KPGA 코리언투어 선수들에게 국제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실력 있는 선수들이 큰 무대에서 대한민국 골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러피언투어 키스펠리 CEO는 "한국 선수들은 최근 유러피언투어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으며 골프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KPGA와 유러피언투어의 동반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KPGA 코리언투어 주요 선수들도 유러피언투어와의 협약을 크게 반겼다.

지난해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 최진호(38·현대제철)는 "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매 시즌 제네시스

대상이 목표다. 올 시즌에도 보다 열심히 노력해 제네시스 대상 2연패와 함께 유럽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GA 코리언투어 선수회 대표 김형태(40)도 "우리 선수들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프로골프 선수라면 누구나 최고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기를 꿈꾼다. 이처럼 실력 있는 선수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KPGA 코리언투어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근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